

# 사고·질병 넘어 일상건강까지... 보험사, 웰니스 경쟁 속도

## 교보라이프플래닛

착한 의사 제휴, 종신보험 가입자  
업계최초 건강검진 페이스 서비스

## 삼성생명 '헬스케어 파트너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손잡고  
고객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사들이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계 건강관리 서비스 이미지.

보험업계가 사고·질병 보장에만 머물던 틀을 깨고 가입 고객의 일상 건강을 전담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검진부터 운동·영양까지 책임지는 통합 서비스를 앞세워 '웰니스(Wellness)' 시장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단순 보장에서 벗어나 가입자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개선했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이달 업계 최초

로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 의사'와 제휴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검진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고 추적 관리 패키지까지 지원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은 그동안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해야만 보

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입 기간도 길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아까운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험을 통해 단순히 미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헬스케어파트너십'으로 고객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평균 수명 증가로 '젊음이 길어진 시대'를 맞이해 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더헬스(THE Health)' 앱 내에 공단의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과 활동 인센티브인 '튼튼 머니'를 연계해 고객들이 체력 측정부터 생활 스포츠 참여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협약은 삼성생명의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며 "삼성생명은 공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지역별 건강 및 질병 문제를 연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및 노후 보장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는 지난달 'KB건강매니저' 서비스를 리뉴얼하면서 디지털 기

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KB건강매니저는 기존 건강정보 분석 서비스에 더해 '영양제 분석', '비급여 병원비 비교 기능'을 추가해 고객이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KB금융그룹의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와 KB라이프의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의 삶에 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위기 극복의 해... 자산 건전성 확보 매진"

## 새마을금고 새 얼굴

### 이용희 종로중앙 이사장

28년 실무담당 금융전문가 역량 발휘  
영세상인 위한 상품·복지사업 준비



이용희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남다른 책임감이 느껴진다. 실무책임자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압박감이 있다. 올해는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지역 맞춤형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싶다."

이용희 서울 종로구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에서 22년째 재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조1318억원이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선거는 직선제로 치렀는데 후보자 4명이 경쟁했다. 서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조합원 17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이사장은 1215표(67.57%)를 받아 최종 당선됐다.

이 이사장은 올해를 '위기 극복의 해'로 정했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후배 직원들과 함께 자산 건전성 확보

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19%다. 연간 2.6%포인트(p) 상승했다.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한 탓이다. 30년 가까이 실무를 직접 해왔던 만큼 '금융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시기다.

최근 여신과 채권회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쌓은 대손충당금만 334억원에 달한다. 각 부서별 팀장들과 소통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다. 지역 환원 사업과 복지 사업도 필요하지만 금고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우량대출 여신 확보도 신경쓰고 있다. 올해 1500억~1800억원 규모의 중도

금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은 우량채권으로 분류된다. 해당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량차주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 이사장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기대감이 크다. 연체채권을 매각해 건전성을 높이면 그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어서다. 하반기 내수시장 회복 시기와 맞물리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상인의 사업장 정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중 동대문시장 상인의 비중이 높다. 부부가 운영하는 2인 사업장 비중이 높고 대부분 영세하다. 관련 정책금융 상품을 약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 상승을 겪으면서 리스크관리 역량도 키웠다.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반드시 지역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금고를 안정화 하고 위기를 타개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이달 셋째 주 전국 4곳서 2486가구 공급

## 분양 캘린더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등 분양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486가구(일반분양 2486가구)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세일풍경채워너스카이',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화강에피트' 등 6곳이 개관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에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최고32층, 7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576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LG화학,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로 직주근접이 용이하다.

도보권 내 중심 상권 및 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다. 인근에 2029년 천안-청주공항선 북청주역 개통이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은화삼지구 A2·A3블록 일원에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2단지는 지하3층~지상최고28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1804가구 규모다. 3단지는 지하4층~지상최고26층, 3개동, 전용면적 84㎡, 239가구 규모다.

인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일자리 여건이 우수하다. 차량이용 시 10분 거리 내 용인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 및 이마트,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생활인프라가 이용 가능하다.

/전지원 기자 jiw13@

# 하나금융, ESG 관리·공시 대응시스템 구축

각 분야 데이터 표준화 수집·관리

하나금융그룹은 13일 그룹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공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한다. ▲기후 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 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활용한다.

하나금융은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국내외 전문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데이터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그룹사별로 ESG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DL이앤씨, 3900억 규모 장충동 초럭서리 호텔개발 수주

파라다이스그룹 호텔 프로젝트  
예술·문화 아우르는 랜드마크 구현

DL이앤씨는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일대에 들어설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은 파라다이스그룹이 '위버(uber·초프리미엄) 럭서리' 호텔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호텔은 1만3902㎡ 부지

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189개 객실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공사비는 약 3900억원이며, 오는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그동안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과 여의도 콘래드호텔을 비롯해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등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은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호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